

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.

- 현 정부 1호 김포한강2 4.6만호 지구 지정, 보상과 부지조성 동시 진행하여 '30년 첫분양
-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본격 확충으로 고질적인 교통문제도 해소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,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.
 -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'26년 지구계획 승인, '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,
 -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(4.6만호)는 김포한강신도시,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, 광역교통·자족시설을 확보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.
 - 김포한강2지구 731만㎡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(1,292만㎡, 7만호)*와의 통합 규모는 2,023만㎡로, 분당 신도시(1,964만㎡)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.6만호(계획인구 약 30만명)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.
 - * 김포한강신도시 1,086만㎡(5.6만호), 김포장기지구 88만㎡(0.5만호), 김포양곡지구 84만㎡(0.5만호), 김포감정1 지구 34만㎡(0.4만호)
-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,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.
 - GTX-D, 김포골드라인,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, 서울 5호선 김포점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

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,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.

-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의 확장,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.

□ 장래 신설될 서울 5호선역 인근 지구 중심부는 일-생활이 융합된 도심형 자족시설을 배치하여 일과 주거가 균형잡힌 신산업 공간으로 계획하고, 생활편의기능을 복합한 생활형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맞춤형 녹지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.

- “Compact & Network”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하여 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·고밀 개발하고 주변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.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「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(22.8.16)」 일환으로 발표한 첫 신규택지로 청년·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임과 동시에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며

- “현 정부에서 발표한 평택지체(3.3만호), 구리도평2(1.85만호), 용인이동(1.6만호), 오산세교3(3.1만호)도 ‘25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하여 수도권에 김포한강2지구를 포함 약 15만호를 공급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, 3기 신도시도 올해 5개 지구* 1만호 착공을 시작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’이라고 하였다.

* 인천계양(1,2천호, '24.3 착공), 하남교산(약 1,1천호), 고양창릉(약 2천호), 남양주왕숙(약 4천호), 부천대장(약 2.5천호)

담당 부서	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현준 (044-201-4505)
		담당자	사무관	김호숙 (044-201-4548)
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혜진 (044-201-5045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훈 (044-201-5046)
			주무관	한태희 (044-201-505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(사업시행 전) 기존 김포한강신도시 현황



(사업시행 후) 통합 도시공간 완성

